

### 나 주님만 따르리라

장진남 목사의 출생지는 평안북도 신의주. 1940년 생.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60 나이를 넘긴 그분의 모습은 허영계 센 수염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감싸 안아 줄 산신령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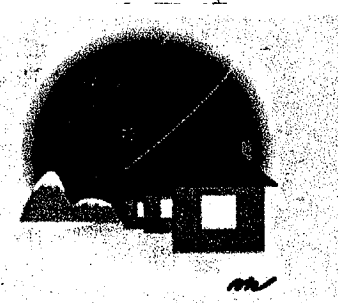
지금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자락에 차광막을 덮은 움막집에서, 당장 내일의 일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살고 있지만, 그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다섯명 정신박약아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풍채는 산신령이나 도사(道師)처럼 위풍 당당하지만 그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은 문자 그대로 천로역정(天路歷程)의 길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남달리 건장한 체격과 광광한 성품을 타고난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운동에 뛰어난 그는 권투선수가 되어 세계를 제패(制覇)할 꿈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아마추어 미들급으로 28전(戰), 한번도 패한 일이 없는 전승(全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시합을 가진 어느 날, 그는 이름도 없는 흑인 선수에게 KO패를 당한 뒤에 정신을 잃고 6시간 동안이나 생사의 기로를 헤메었습니다. 권투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하고 자원한 곳은 해병대. 그러나 가장 사랑하던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에서 자신은 살아 남고 친구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는 불가해한 일을 겪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으나, 자신의 남은 삶이 누구인가를 위하여 받쳐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입학,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던 동안 병원과 나환자 재활원에서 전도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앞에 버려진 한 정신박약아를 만나면서 장애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병원이 포기하고 내다버린 생명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21명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인척과 친구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미친 듯이 그러다가 지쳐서 그만 두겠거니 하는 눈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진남 목사가 가는 길은 오직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였습니다. 진정한 사랑, 곧 참 그리스도인이란 값을 능력이 없는 대상에게 값없이 내주는 사랑, 병 들고 가난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 곧 대가 없는 희생과 봉사로 돕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가 가는 길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동네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구청에 진정서로 계속해서 민원을 내고 구청에서는 철거 통보를 해왔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인적이 드문 강서구 내발산동 산속에 있는 허름한 판자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래도 한동안 눈총을 받지 않고 오순도순 행복하고 안전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자 다시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쳤고, 강제 철거와 장목사 가족의 천막 재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갈곳 없던 그들은 당장 잠잘 곳을 만들었을 뿐이나, 1986년 12월, 득득 얼어붙던 겨울, 그는 어디로인가 끌려갔고, 여러 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보금자리인 '사랑의 집'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4년만인 90년 4월에야 풀려났습니다. 나와보니 아이들은 불뿔이 흩어지고 남은 아이는 다섯명 뿐. 갈곳 없던 그들은 청주로 지리산으로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QT하는 갈보리교인'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1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4월1일
☎269-8677/021-292-1639, ☒10 Bu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옛날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진 먼 시골로 중환자를 왕진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는 길목의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에다 전화를 걸어 창문에 등불을 켜 둘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리고 이웃집에다 전화를 해서 역시 창문에 등불을 켜 두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환자의 집에 이르는 동안 모든 길목의 집들이 창문에 등불을 켜게 되었고 의사는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로 도와주는 길목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

(나의 삶 나의 하나님에 귀서 계속)

떠돌며 약초를 캐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약초 캐기 10년. 가까스로 원주 귀래면에 움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으나 언제 다시 쫓겨날는지 알 수 없는 일. 요즘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나 장목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장편수기 '나 주님만 따라가리'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차광막을 둘러친 움막집 일망정 자식들을 누구보다 따듯하고 배부르게 먹이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0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9(고난주간 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39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영권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 13:12-13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성문밖의 그리스도"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찬미 49 그때 그 무리들이" (마지막절은입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4월 예배 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4/1	이영권	김영태	최재학.노은숙	한 건. 김시욱	최재학.정희자
8	임혜자	김영길	김교섭.정희자	김성국.안은주	박일영.임혜자
15	정희자	김교섭	김시욱.장선주	김교섭.정희자	최윤호.송정섭
22	조순정	한은영	김영길.신경화	박일영.임혜자	최재학.정희자
29	최윤호	한 건	박일영.임혜자	김영길.신경화	박일영.임혜자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잠언.전도서.아가: 1명. 시편(7):2명
-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성경.찬송"
- 사순절 다섯째주간입니다
- 종려주일: 다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종려주일(고난주간)입니다
- 고난주간  
\*매일 새벽기도회: 월-토요일. 6:00am  
\*고난주간 금식: 1일 1끼 금식
- 성금요일 예배  
\*일시: 13일(금) 정오 \*장소:교회
- 등록교인 성숙자반 공부 3번째(죄론.전도론)  
\*일시: 매주 금요일(4회).  
\*대상: 기초성경공부 3,4기  
\*장소: 김교섭 장로 자택
- 동역자회의: Tea Time 후 갖습니다.(Hall)  
\*구성: 목사,장로.각 위원장 & 청년부 대표
- 교우소식  
\*박용태 집사. 지난 월요일 퇴원  
\*엄주화성도(김준영) ☎ 415-3008
- 4월의 교회력과 모임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8일	종려(고난주간)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9-14) 성 금요일 예배
15일	부활주일	Easter Monday 낚시대회
22일		
29일	이삭줍기봉헌	